



## 卷頭辭

서울大學校 金桂淑  
附屬圖書館長

1967年은 서울大學校 綜合 10個年計劃의 第一次年度로서 本附屬圖書館도 여기에 步調를 맞춰서 飛躍的 發展의 基盤을 닦고있다. 또 今年은 本圖書館이 舊態에서 脫皮하여 「研究하는 教授, 工夫하는 學生」의 새로운 學園氣風을 복돋기 위하여 「文獻資料의 길잡이」가되고 大學圖書館의 面貌를 갖추기 위하여 現代化의 첫 걸음을 내어 디딘 해이기도 하다. 自畫自讚인 것 같기도 하지만 실지에 있어서 本館에서는 今年에 많은 事業을 遂行하였다.

첫째로 學術文獻速報事業이 그것이다.

우선 今年에는 本館에 受入되는 國內外 學術雜誌에 掲載된 論稿의 索引을 作成, 印刷하여 教授에게 提供하였는데 다만 部數가 적어서 全學生에게 配付되지 못하였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新年度부터는 人文社會科學系 學術論文을 中心으로 하여 各分館所藏分은 물론이요 他大學所藏分까지도 索引을 作成하여 教授 및 學生에게 提供하며 또 他大學과도 文獻情報交換을 하여 全國的인 學術雜誌索引를 作成함으로서 더욱 教授들이 學術研究에 精進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計劃이다.

둘째로는 藏書目錄의 出版을 들 수 있다.

本館에서는 1966年에 奎章閣圖書中 韓國本目錄 6冊과 일사·가람 文庫圖書中 古書著者目錄 1冊을 出版한 바 있다. 여기에 繼續하여 今年부터는 本館所藏의 貴重한 全藏書目錄의 出版에 着手하였다.

우선 第一輯으로서 創館以後 1945年까지에 菲集·整理·保管되어 있는 西洋書中 哲學·宗教分野圖書의 分類目錄을 「제록스」(Xerox)施設을 利用하여 四·六倍版 옮겔印刷 624面의 册子로서 出版하여 圖書館資料檢索에 있어 서의 劃期的인 事業을 시작하였다.

이 事業은 繼續하여 다른 分野圖書의 目錄까지도 出版함으로써 數年内에는 全藏書目錄을 出版完了할 豫定이다.

또 한편 이 藏書目錄의 出版은 本校圖書館綜合圖書目錄의 編纂은 물론이요 우리나라의 全國的 綜合圖書目錄의 編纂에까지 이를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國際的綜合圖書目錄의 編纂에도 寄與할것을 생각하면 더욱 事業의 重要性과 함께 本圖書館의 使命의 重大함을 느끼게된다.

셋째로는 現代圖書館에 있어서 매우 繁要한 文獻複寫事業을 들 수 있다.

光學機械에 의한 文獻複寫는 研究資料를 拈萃 菲集함에 있어서 迅速과 正確을 期할 수 있는 가장 現代的인 科學的인 方法인 것이다.

本館에서 이와같은 새로운 方法에 의하여 文獻複寫業務를 開始한 것은 1962年 10月이며, 回顧하면 5年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동안 巨步의 仁 發展과 함께 많은 文獻情報를 國內外에 提供하고 있다.

1962年 初創期에는 오로지 國內技術만으로써 手工業形態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1964年부터는 마이크로 필름 施設을 導入하여 文獻複寫方法에 一大 改革을 가져왔고 1966年末부터는 電子複寫機에 依한 最新式 現代的 方法을 採用함으로써 이 業務遂行에 拍車를 加하게 되어 그 동안 수 많은 貴重한 文獻을 마이크로 필름 또는 印畫紙로 複寫하거나 또는 影印本으로 出版하여 本校 教授 및 學生에게 各種文獻情報を 提供하였을 뿐더러 美國을 비롯하여 歐洲, 亞細亞의 여러 國家 그리고 濟洲에까지도 이 複寫物을 보내어 우리의 民族文化를 國內外로 널리 紹介하고 國威를 宣揚하고 있다.

또 今年末에는 美國의 「하버드·옌칭」의 거듭한 厚意로 電子複寫機(1385型)施設을 完備하게 됨으로써 1968年부터는 文獻複寫事業에 더욱 더 큰 期待를 갖게 되었다.

日益 輻奏하는 通常 業務를 堪當하기에도 매우 어려운 困境속에서도 이와 같이 有爲하고도 莫重한 事業이 着着 進捲되어가는 것은 오로지 館員들의 不斷한 努力 그리고 热誠의 結果라고 볼 때에 館員 여러분의 勞苦에 대하여서는 衷心으로 感謝하는 바이다.

바야흐로 祖國近代化의 課業을 遂行해 나가는 이 때에 이러한 勞苦는 必然的인 것이며 이 高貴하고도 깨끗한 犧牲은 헛되지 않을 것이며 또 祖國近代化課業遂行을 促進하는 原動力이 되어 우리 民族에 光明이 찾아 올것이 틀림 없으니 흐뭇한 感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